

## 수출입은행, “이집트 ERC 정유 프로젝트”에 PF 방식으로 총 8억 달러 지원

- 이집트 국책사업 지원 통해 아프리카 플랜트 수출 기반 마련

- 한국수출입은행([www.koreaexim.go.kr](http://www.koreaexim.go.kr), 은행장 김동수)은 8월 10일 “이집트 ERC(Egyptian Refining Company) 정유 프로젝트”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8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.
- “ERC 정유 프로젝트”는 이집트 국영석유공사(EGPC) 및 아랍정유회사(ARC)가 합작으로 카이로 인근에 휘발유, 디젤 등 고도정유제품을 연간 5백만톤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건설·운영하는 총 37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다.
  - 이집트는 정유설비가 노후하여 휘발유, 디젤 등 고도정유제품의 공급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, 공기 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,
  - 이집트 정부는 “ERC 정유 프로젝트”가 이같은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민자방식 국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.
- 수출입은행은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집트 측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GS건설이 “ERC 정유 프로젝트”를 수주(수주액 22억 달러)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, 서브프라임 사태 등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금융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사업성사에 큰 역할을 하였다.
-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“아프리카는 ‘제2의 중동’ 특수가 기대될 정도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된다”며 “플랜트 분야가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 : 이집트 ERC 정유 프로젝트 개요

문	플랜트금융부 플랜트금융 3팀장 양한준 (☎02-3779-6404)
의	홍보실 공보팀장 채상진 (☎02-3779-6065)

(붙임)

## 이집트 ERC 정유 프로젝트 개요

구 분	사 업 내 용
사 업 개 요	이집트 카이로 인근에 연산 5백만톤 규모의 고도 정유설비를 건설·운영하는 프로젝트
사 업 주	· Arab Refining Company : 주사업주(이집트) * Citadel Capital이 본건 투자를 위해 설립한 지주회사 · EGPC(Egyptian General Petroleum Cooperation, 이집트 국영기업) · Hudson(이집트 민간기업)
프로젝트회사	Egyptian Refining Company(TAKRIR) S.A.E.
총 사 업 비 용	U\$37억
E P C 계 약	GS건설과 미쓰이 컨소시엄(U\$22억)
생 산 제 품	디젤(연 2,255천톤), 가솔린, 항공유, 코크 등 정유제품
원료공급 및 생 산 물 구 매	EGPC

